

# [Media Kit]

## I) Company Overview

- i) Overview
- ii) Swit 설립배경
- ii) 서비스 론칭
- iii) 투자 정보/히스토리

## II) Mission & Core Value

- i) Re;Humanize Work
- ii) Swit's Core Value / Switness
- iii) About Name & Logo

## III) Work OS 'Swit'

- i) Work OS
- ii) 3가지 특징 ① **Scalability** ② **Interoperability** ③ **Functionality**
  - ↳ Scalability: 무제한 워크스페이스로 유연한 확장성
  - ↳ Interoperability: GWS & MS office365와 '완벽한' 연동
  - ↳ Functionality: 채팅+업무관리+플러그인 = 올인원 Work OS 기능
- iii) Swit Pricing Table
- iv) Swit 및 타사 비교대조표

## IV) Swit 수상 실적

- i) 스타트업 그라운드 글로벌 컨퍼런스(Startup Grind Global Conference) 올해의 스타트업상 (대상)(Growth startup of the year, 2021)
- ii) IT 전문지 'CIO 리뷰'가 뽑은 '2021 가장 유망한 원격업무 기술 솔루션' 1위
- iii)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G2 선정
  - 70개 글로벌 협업툴 중(Slack, Trello, Notion etc.) 6개 부문 1위
  - 2022년 Task Management 분야 Best Software 선정
- iv) 구글마켓플레이스가 뽑은 2022 '혁신적인 앱'

## V) Customer Success Story

- i) 전 세계 고객사 수
- ii) 국내외 도입사례

## Appendix ① Image & Video Assets

- i) Google for Startups NewsLetter: [San Francisco startup Swit empowers remote collaboration](#)
- ii) 브랜딩 및 한국어 버전 데모 영상
- iii) Swit 옥외 광고 영상 편집본

## Swit Executives Bio

# Press kit

## I. Company Overview

회사명	스윗 (Swit Technologies Inc.)
대표자	이주환 (Josh Lee, CEO)
공동설립자	이주환 (CEO), 임상석 (CTO), 박진호(한국지사장)
설립년도	2017년
본사 소재지/역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 95 3rd St. 2nd Fl., San Francisco, CA
한국오피스	강남구 삼성로 570
주요 사업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SaaS, Software as a Service), 협업 플랫폼
임직원 수	약 130여 명 (한국 100여 명, 미국 20여 명 / 현재 채용 중)
웹사이트	<a href="https://swit.io/">https://swit.io/</a>

2017년 실리콘밸리에서 이주환 (Josh Lee, CEO & Co-founder)대표는 임상석 (Max Lim, CTO & Co-founder), 박진호 (Jinho Park, 현 Korea General Manager)와 함께 단일 기능 중심의 협업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한계점을 보고 의기투합하여 일상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팅’과 ‘업무관리’ 기능을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협업 소프트웨어 기업 ‘Swit’을 설립했다.

### 1) 협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현재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아, 기업 내 근무 형태 및 업무 트렌드는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 등의 다양한 근무와 디지털 협업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기업에서는 직원 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및 시스템을 도입/추진하면서 동시에 협업툴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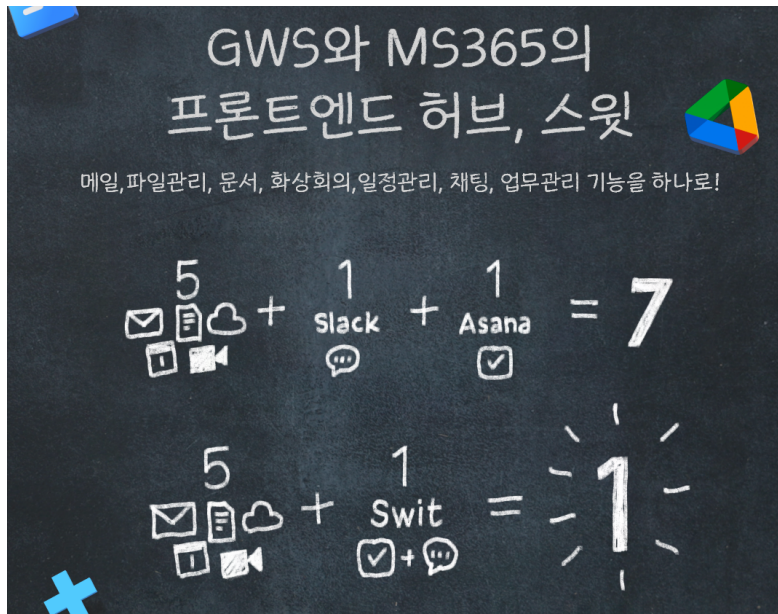
글로벌 Tech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팬데믹 기간 및 그 이후까지도 원격 근무 시 직원들을 서로 긴밀히 연결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며 소셜 및 협업 솔루션이 올해에도 2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이메일 ▲파일공유 ▲문서작성 ▲화상회의/컨콜 ▲캘린더, 이 5가지 필수 앱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이 원격 근무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편리하게 하는 다른 유형의 플랫폼 ▲메신저(Chat) 와 ▲업무관리(Task Management)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 2) Swit이 바라본 시장의 문제점

## I. 위기에 놓인 직원생산성

현대 팀 협업을 위해서는 여러 앱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만 한다. 메신저, 문서 작업, 파일 공유, 업무 및 일정 관리, 화상 회의 등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도 최소 7개 이상의 앱을 수십 번씩 열고 닫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알림과 반복적인 탭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고, 다양한 채널 위에서 정보들이 산재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직면하게 된다. 직원들에게는 생산성과 몰입을 높이는 ‘필수 앱들의 허브’역할이 필요했다.



[Swit을 도입하면 협업앱이 1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하나’로 줄어든다]

## II. 체계적이고 몰입할 수 있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부재

이에 **Swit**은 협업 필수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All our work in one place**) 전세계 유일한 **Work OS**를 지향하는 협업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Swit**을 작은 규모의 팀을 위한 단순 협업도구 시장의 ‘라스트 무버(**Last Mover**)’라 할 수 있지만, 기업 협업(**Enterprise collaboration**)을 위한 솔루션의 ‘선구자, 프론티어(**Frontier**)’라고 정의한다.

### 3) Swit 출시 히스토리

**Swit**은 2018년 7월, 테스트 버전을 처음 시장에 선보이고 이듬 해인 2019년 3월 현재 형태의 **Swit**을 공식 출시 했다. 공식버전 출시 후, 곧바로 유료 전환을 단행했고 1년 간 150여 차례의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처음의 컨셉을 유지하되 고객들의 거의 모든 피드백을 반영했다. 이에, **Swit**의 올해 상반기(2021) 월반복매출(MRR)은 전년 동기와 대비 1230% 증가, 유료고객 이탈률은 1% 미만으로 높은 리텐션을 기록했다. 실제로 **Swit**의 사용자 수 증가 속도는 경쟁사(**Slack**) 초기보다 2배 이상 빠르다.

#### 4) 누적 투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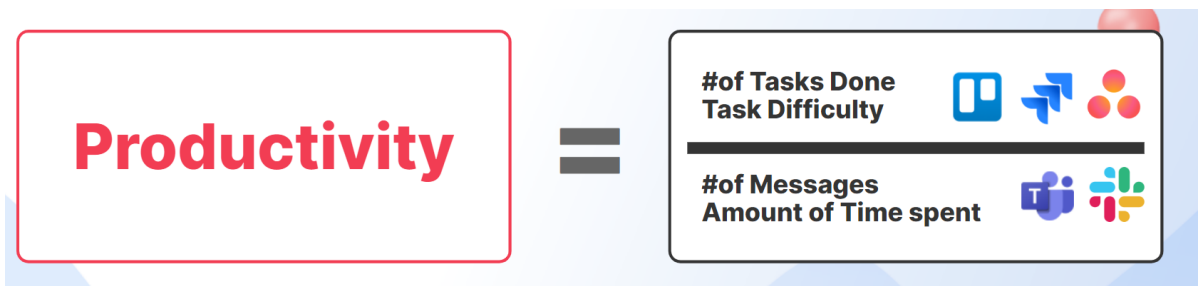
- **2021년 Series A**
  - 현 기업가치: **\$300 M (SAFE 포함)**
  - **\$22M**(한화 약 260억원)
  - SV인베스트먼트, 센트랄(CTR), 미래에셋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두나무앤파트너스, 하나금융투자, 클라우드파트너스, 프리미어사제파트너스
- **2020년 Seed**
  - 약 60억원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2019년 Seed**
  - 약 70억원
  - 한국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현대기술투자
- **2018년 Seed**
  - 약 10억원
  - 카카오벤처스

## II. Mission, Value

### 1) 우리의 미션 - Re;humanize Work

‘소통’은 협업을 하기 전(Before) -도중(During)-이후(After)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의사소통 없이, 제대로 된 협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리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워크플로 내에서는 사실 이 두 기능은 항상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기존의 협업 도구들로 인해 파편화된 업무 환경에서 협업해왔다.



**[도표 설명: Swit이 재정의하는 ‘생산성’]**

단순히 Input(투입 리소스) 대비 Output(산출량)이 아닌, 소비된 ‘시간’을 측정해 질적인 면의 산출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스윗은 ‘메신저’와 ‘업무관리’의 조합은 팀 생산성을 재정의하는 공식을 바탕으로, 질적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의 투명성이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총 생산성(산출량/투입시간)을 향상시킨다.

처리한 업무량(output)만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기존의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에 투입되는 소통 비용(input)이라는 질적인 요소도 함께 측정하는 이 급진적인 공식은 기본적인 인간 본질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Swit은 신뢰, 관계와 같은 인간 본연의 성품을 이끌어내어 기업들이 의사 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도록 돕자는 ‘Re;Humanize Work’라는 미션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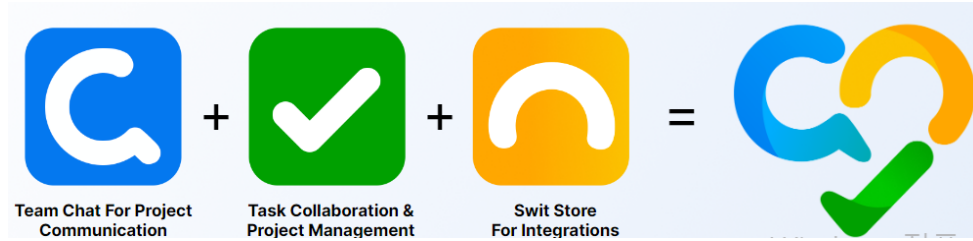
## 2) Switness

**Switness**는 Swit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제공하는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가치(Core value)를 의미한다.

- **Fast Growth / 빠른 성장**
  -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 **Intelligent Curiosity / 지적 호기심**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계발
- **Persuasive Tenacity / 설득력을 가진 고집**
  - 자신의 생각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동료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
- **Creativity That Brings Results / 실질적인 창의성**
  -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넘어 고유한 것을 창조해내는 힘
- **Being Proactive, Responsive, Available / 주도적이고 협조적이고 준비된 자세**
  - 내 시간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준비된 소통 (능력)
- **Balance Between Accountability and Autonomy / 책임과 자율의 균형**
  -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면서 각자 주어진 책임에도 충실한 자세
- **Balance Between Intelligence and Humility / 지성과 겸손의 균형**
  -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만큼 중요한 겸손한 자세
- **Balance Between Diligence and Collaborativeness / 성실과 협동의 균형**
  - 성실한 직업윤리를 보여주면서도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는 자세

## 3) Swit 의 뜻과 기업 로고의 의미 (리브랜딩 중, 아래 로고는 대외비)

Swit은 **Stay Working In Teams**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협업을 보다 **Sweet**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full **Suite** platform이라는 뜻도 내포하여 두개의 단어를 발음 할 때 Swit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Suite**과 **Sweet**이란 단어에 변주를 주어 정해진 회사명이다.



### III. Swit 제품 특징

#### 1) Work OS?

: Work Management/Work OS는 Swit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다. 국내보다 협업에 대해 더 오랫동안 고민한 美시장에서는 이미 통용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상의 용어이며, 조사기관에 따라 Work Management 또는 Work OS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한국 또는 협업툴을 협소하게 쓰는 시장에서 말하는 ‘협업툴’의 개념은 특히 채팅(메신저) 중심의 기업들에 의해 ‘팀 컬래버레이션 = 하나의 업무 중심의 협업’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어버렸다. 이러한 팀 협업 형태는 태스크 중심의 협업(**Task Collaboration**)이라 부르며, 주로 팀 내 ‘실무자’들이 하는 협업을 뜻한다. 작은 기업이나 기업 내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이뤄지는 규모에 해당한다.

반면,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 최소 팀장 이상의 관리자간의 부서 간 협업 -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것을 일컬으며, 팀 협업보다 복잡도와 규모가 크다. 이런 규모의 협업은 국내 대다수의 메신저 기업이 말하는 ‘협업툴’로는 전혀 매니징이 불가능하다. 메신저 내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형태로는 큰 규모의 전사 프로젝트가 하기 전(To do), 하는 동안(Doing), 완료(Done)의 단계 동안 업무를 추적(Tracking) 및 리뷰(Monitoring) 할 수 없기 때문이다.

Work Management/Work OS가 되기 위해서는 ‘팀 내 협업, Task Collaboration’ 과 ‘전사적 협업/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roject management’을 지원하는 Workflow Automation (워크플로 자동화 솔루션)의 요소가 필요하며, 스윗은 전사적 워크매니지먼트가 가능한 ‘Work OS’를 지향하고 있다.

#### 2) 3가지 특징점

##### A. 확장성 (Scalability)

: Swit은 ‘협업플랫폼’으로써, 직원 간 직원은 물론 팀 간, 부서 간, 지사 간 등 전사적 (company-wide)한 협업을 지원한다. 기존 협업툴들은 싱글 워크스페이스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사용하기 한계가 있다. Swit은 현재 100명에서 5~8000명까지의 중견기업, 그리고 태스크포스(TFT)로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대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워크스페이스를 지원하며 확장성(Scalability)를 가지고 있다.

##### B. 호환성 (Interoperability)

: Swit은 Google Workspace 및 Microsoft 365와의 완전한 기능 연동을 지원한다. Swit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협업 허브는 전례 없이 매끄럽고 최적화된 직원경험(EX)을

제공한다. 우측패널을 통해 구글앱, MS앱은 물론 줌이나 연내 지라, 슬랙, 먼데이 등까지 상호연동 예정에 있다.

### C. 기능성 (Functionality)

: 우리가 팀 협업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두 기능, '채팅'과 '업무 관리'가 Swit 안에서 기본으로 제공되어 불필요한 탭 전환과 알람, 정보의 사일로를 최소화 한다.

## IV. 외부 평가 및 수상 실적

1) 스타트업 그라운드 글로벌 컨퍼런스(Startup Grind Global Conference) 올해의 스타트업상 (대상)(Growth startup of the year, 2021)

2) IT 전문지 'CIO 리뷰'가 뽑은 '가장 유망한 원격업무 기술 솔루션' 1위



3)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G2에서 70개 글로벌 협업툴 중(Slack, Trello, Notion etc.) 6개 부문에서 전체 1위 & 2022 베스트 소프트웨어 선정 (업무관리)

- 사용하기 쉬운 협업툴 1위
- 추천하고 싶은 제품 1위
- 제품의 방향성 부문 1위
- 기업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는 기업 1위
- 고객관리 잘하는 기업 1위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NPS) 1위

※세계 최대 엔터프라이즈 마켓플레이스 G2의 2021년 평가표: 6개 부문 1위 (2022년 태스크 매니지먼트 부문 'Best Software로 선정')

Mid-Market Grid® Report for Project Management   Summer 2021 G2	Likelihood to Recommend	Product Going in Right Direction?	Meets Requirements	Quality of Support	Ease of Use	Net Promoter Score (NPS)
<b>1</b> Swit	<b>98%</b>	<b>94%</b>	<b>97%</b>	<b>95%</b>	<b>98%</b>	<b>93</b>
2  ClickUp	93%	93%	90%	94%	89%	79
3  monday.com	93%	94%	92%	92%	92%	78
4  Airtable	91%	93%	91%	89%	89%	69
5  Notion	91%	88%	94%	95%	88%	65
6  Trello	87%	83%	90%	87%	91%	57
7  Asana	86%	89%	88%	86%	87%	55
8  asana	85%	85%	88%	87%	87%	48



## V. Swit 고객 성공 사례 + media share 가능한 clients list

Swit은 현재, 184개국 4만여개의 누적 기업/팀들을 고객으로 확보했고 국내에서는 티몬, 대한항공, 센트랄, 오로라월드, 자비스 등에서 도입했다.

[국내 도입 대표적 예 + USP]

- 대한항공 - **Enterprise-wide scalability**
- 티몬 - **Corporate culture innovation**
- 센트랄 - **A frontend hub for Microsoft 365**
- 오로라월드 - 중복 소비 줄임 (슬랙, 지라) / **GWS와 함께**
-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 **MS365의 프론트엔드 허브, 생산성 향상**

## VI. Swit 관련 영상, 이미지 자료

※Swit만의 새로운 Work OS 공식



# # #



## <Appendix> Executives Bio

이주환 (Josh Lee, 만 41 / CEO & Founder of Swit Technologies inc.)



### Josh Lee (이주환) CEO of Swit

- 2009. 2 서울대학교 영문과 졸업
- 2014. 2 지니어스팩토리(LMS) 창업
- 2017 Swit Technologies inc. 설립
- 2019. 3 Swit 정식버전 출시
- 2020. 2 Startup Grind Global Conference 올해의 스타트업(대상)
- 2020. 10 美 CIO Reivew 가 꼽은 '가장 유망한 원격업무 기술 솔루션'
- 2021. 7 G2선정 업무관리 협업툴 중 6개 분야 1위
- 2021. 10 Google Marketplace 선정 2022' 혁신적인 앱
- 2021. 12 Series A 성료 (누적투자 400억)
- 2022. 2 G2선정 업무관리 분야 '2022 Best Software'

이주환 대표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시절부터 영어교육시장을 깊게 경험하다 교육과 관련한 사업으로 창업의 길을 시작했다. 11살 때부터 '코딩'에 흥미를 느껴 독학을 하며 개발자만큼의 실력을 갖춘 이 대표는, 개발자 도움 없이 누구나 학생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노코드앱빌더(No-code app builder) 교육용 앱'을 직접 개발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이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시점에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어려워 사업을 접었으나, 시장 분석, 시장에 맞는 제품&서비스, 개발, 인재영입 등 많은 창업 노하우를 축적하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협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지만 메신저나 업무관리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통합허브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니즈와 달리 이 해결책은 부재했다. 직원생산성을 재정의할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이주환 대표는 2017년에 비로소 기존의 협업 툴을 넘어선 '직원생산성 운영체제(Work OS)'인 [스윗테크놀로지스\(Swit Technologies Inc.\)](#)를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했다.



(왼쪽부터) 박진호 이사장 / 임상석 **CTO** / 이주환 **CEO**

**임상석 (Max Lim / CTO & Founder of Swit Technologies inc.)**

- 대원고등학교 졸업
- Swit Technologies Inc. CTO (2018- 현재)
- ㈜디시지 CTO (2017.9- 2017.12)
- FORBIZ KOREA CTO (2016.1 - 2017.09)
- HUCHCODE CORP. CEO 겸 CTO (2013.1 - 2016.12)
- 필리핀 옥션(Auction.ph CORP. ) (2006.7 - 2013.9)
- ㈜옥션 CTO (1999.7 - 2006.6)

**박진호 (Jay Park / EVP - Country Head of Korea, 스윗 한국지사장 Bio>**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2005)
- Genius Factory Inc. 법인운영총괄(2014-2017)
- Swit Korea, Inc. 법인운영 총괄(2017-현재)